

大學 漢字 教育의 必要性和 改善策*

孫澈徹**

<目 次>

1. 序言
2. 漢字 教育의 必要性
3. 大學 漢字 教育의 現況
4. 大學 漢字 教育의 目標
5. 大學 漢字 教育의 改善策
6. 結言

1、序言

21세기에는 동양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무성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 두 나라 간의 교류와 왕래는 비록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시작은 늦었지만, 그 속도는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그 범위와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의 中國과 관련된 제 분야의 학문에 대한 관심과 연구 열기가 급속히 높아지고, 이에 필수적인 漢字에 대한 교육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각 대학의 한자 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10032-A00016).

**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해서는 지금까지의 한자 교육을 전면적으로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한자 교육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교양 한자”라는 제한된 시간에 시행되고 있는 한자 교육을 통해 한국의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한자에 대한 기본 素養을 충분히 갖춘다는 것¹⁾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한자 교육의 각 분야를 시간상 어떻게 분배하고, 初·中·高級의 각 단계별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실정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다가 이와 같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교육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은 한자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昨今の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한자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며, 우리는 왜 한자를 왜 배워야 하는지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일은, 한자 교육의 시스템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제대로 된 한자 교육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지금까지 각 대학에서 시행되어 온 한자 교육의 실상은 어떠한이었으며, 그것이 오늘날의 한자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에 지금 각 대학의 한자 수업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를 토대로 今後的 우리의 한자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설정하여야 하는지를 모색함은 물론, 향후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대학의 한자 교육의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1) “客有爲齊王畫者。齊王問曰‘畫孰最難者?’曰‘犬馬最難’。孰易者?曰‘鬼魅最易……’”

2. 漢字 教育의 必要性

본래 일반적인 “사람” 또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man”이라는 말은 유대어에서는 원래 “왜? 라고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렇듯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하는 존재인 동시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한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탐구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왜”라는 질문에 시원한 대답이 없으면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존재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가치 기준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립된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그 어떤 피교육 집단보다 해당 교과목의 교육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혀두어야 한다.

漢字 教育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일반적인 여론의 수준으로는 어느 정도 어렵겠지나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전면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그 이유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진행된 복잡한 국제 정치적인 환경과,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극심한 혼란과 변화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한자 교육에도 엄청난 혼란과 변화가 야기되었다. 그리고 이는 대체적으로 한글 전용과 국한문 혼용이라는 두 정책이 자주 교차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語文 정책의 혼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어떤 특정 시기에 학교를 다닌 세대는 한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한글 전용 정책을 채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첫째는 한글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애착, 둘째는 우리 것에 대한 지나친 보호, 셋째는 사대주의에 대한 반발, 넷째는 빠른 산업화를 위한 문맹 퇴치 목적 등을 꼽을 수 있다.²⁾ 이런 현상은 지금도 어렵지 않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요즘에도 한글날이 찾아오면 외국의 학자까지 동원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글로 중국의 “漢語拼音”³⁾을 대체할 수도 있다거나, 문자가 없는 외국의 원시 部族에게

2) 한글 전용론과 국한문 혼용론 두 주장의 장단점 분석 또는 상호 비교는 본 논문의 주제가 아니므로, 이는 다른 기회에 논하기로 하겠다.

3) 1956년부터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 또는 漢字 발음 기호.

는 한글이 더 없이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비록 한글이 창제된 뒤 500여 년이 지난 뒤에야 정식으로 우리의 공용문자로 지정되었으나, 이미 우리의 공용문자로 지정된 이후로는 이렇듯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 이런 우리의 한글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하며, 이것은 또한 한국인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民族愛의 실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의 우수성 찬양과 민족애의 고취와 한자 교육을 흡수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한자 교육이 결코 한글의 우수성을 훼손하거나 민족애의 고취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는 간단히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이 우리의 한글의 우수성을 훼손하거나 민족애의 고취를 방해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면 한자 교육은 왜 필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漢字 어휘는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우리말 속에 흡수되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미 아예 우리말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말의 풍요함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자 교육은 필요하고도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자나 그 어휘를 배제한다면 우리말을 쓰는데 오히려 불편을 느낄 정도이다. 사람의 생각과 감성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풍요로운가로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뜻을 알고 사용하는 어휘의 양만큼 사고하고 느끼는 것이다. 이제 와서 한자 어휘를 배제한다면, 이것은 우리 뇌의 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도려내는 것이라 보아도 지나친 말이 아니며 전통 문화의 단절인 것이다. 前代로부터 이어져 이미 우리의 언어 습관 속에 깊이 뿌리내린 사고의 씨앗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자를 배우기 어렵고 불편하다고 방치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옛 先賢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라도 한자 교육은 필요하다. 요즘 들어 매스컴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어휘가 바로 이 “소통”이다. 모든 오해의 시작은 소통의 부재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한다. 소통은 어디에나 필요하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예를 들면, 선생과 학생, 부모와 자식, 지배자와 피지배자, 아랍권과 서구권 등등 모든 개인과 집단들 상호 간에 무엇보다도 중요하

고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통”이다. 그런데 이 “소통”은 동시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어 前代의 선현들과의 “소통”도 이에 못지않게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현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진 가르침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옛 선현들의 가르침은 책 속에 있고 그들이 남긴 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경우는 거의 모두가 한자로 쓰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는 漢文 교육⁴⁾에 관하여 “가치중립적인 다른 외국어와 달리 그 자체 일정한 가치 지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⁵⁾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한자의 지식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한자로 만들어진 수많은 문헌의 가치와 그것이 주는 영향을 중시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옛 先人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한자로 작성된 문헌은 우리의 관심 대상에서 벗어난 소통 단절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소통의 필요성이 동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그 인간애를 시간적 한계에 묶어두지 않고 옛 사람 즉 古人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한자 교육은 조금 과장하여 말한다면 고급의 소통을 촉발하여 더 큰 인류애를 발현시킬 수 있는 준비운동이 되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도 漢字 교육은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익힌 이면에는 그 당시로서의 선진문물에 대한 학습 욕구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영어에 몰두하는 현상을 살펴보면 결국은 서구의 선진 문물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비록 해방 후 1992년 중국과의 국교 재수립 이전까지 약 반 세기 동안 단절된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중국과 교류를 해왔다. 중국이 지금의 속도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머지않아 G2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名實相符한 초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을 이웃으로 두고 있고, 요즘 유행하는 중국어 학습에 대한 열풍은 한자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4) 여기에서의 “漢文 교육”이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漢字 교육”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5)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교육과정(한문)>,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이다. 비록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자가 正(字)體이고⁶⁾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가 簡體일지언정 앞으로 맞이할 시대에 대한 준비를 위해 한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넷째, 편중된 사고방식에서 탈출하기 위해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잘 만들어진 사회시스템 속에서 그것이 불편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현대적 합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완전무결한 결정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나 사상은 대부분 훌륭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훌륭하지 않았다면 선택되지 않았을 것이고 지속되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존의 틀이 우리의 생각, 생활, 합리의 기준, 제도 등을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는 “행복하다”는 의식까지도 지배하는 것은 탈피해야 한다. 우리 시대는 이미 자본주의 발달의 최고 전성기를 거치면서 또한 그에 따른 문제점도 체험하기도 하였다. 2008년에 벌어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그러한 실례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사고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동양적 가치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한곳으로 치우친다는 고민을 덜어 낼 수 있는, 혹은 다음 몇 세기 동안 인류의 생각을 지배할만한 다른 활로를 보장해주는 새로운 사상은 없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정 7차 교육과정>에는 한문 교육에 관하여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하여 전통문화를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교과”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한자 교육이 학생들에게 창조의 원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말이다. 그러한 원동력이 발현된다면 창조적 사고를 중시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작게는 우리 개인의 문제와 크게는 인류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글자를 배우는 것은 글자가 담고 있는 문화와 접촉한다는 의미이고, 서양 문화에 편중된 학생들에게 한자 교육을 통한 동양 문화와의 접촉은 마치 부족한 비타민 C를 영양제로나마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중국에서는 1956년 《漢字簡化方案》을 발표한 이후, 簡化字를 “簡體”라고 하고 이에 상대되는 말로 “繁體”라는 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5만 여 漢字 가운데 편방으로 사용된 글자를 제외한 순수한 簡化字는 500를 넘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簡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繁體”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상으로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나름대로 간략히 몇 가지로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는 “왜 배우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알면 효과가 더욱 좋을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목표 의식과 가치 판단이 올바르게 있지 않으면 매우 높은 수준의 사고 능력을 갖춘 우리의 대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 현장에서 교과목의 필요성에 기반을 둔 師弟 간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가르치는 선생도 배우는 학생도 마음의 부담을 덜고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한자 교육의 필요성은 어떻게 한자를 잘 가르치느냐는 시스템의 문제에 앞서 우선 밝혀 두어야 할 교육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교육의 필요성만을 부각시킨다고 한자 교육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사회 구조적인 뿌리 깊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대학의 한자 교육의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자.

3. 大學 漢字 教育의 現況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또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의 교육은 학생들의 知的 수준과 의식의 높낮이에 따라 수업 내용에 차등을 주어야 한다. 漢字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각 대학 학생들의 한자에 대한 인지 수준과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수준은 우리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漢字 혹은 漢文 과목을 독립된 교양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떤 대학은 1학년 학생 전원이 “생활한문”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전체 필수 기초 교과로 지정한 대학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과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기쁜 마음으로 이러한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억지로 수강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한자와 관련된 우리나라 어문 정책의 朝令暮改 식의 잦은 변화로 인한 혼란이다. 한자 교육은 우리나라의 현대적 교육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혼란을 겪은 교과목이다. 우리나라의 어문 정책은 ‘한글 전용론’과 ‘國漢文 混用論’의 대립 속에서 한글 전용, 漢字 混用, 漢字 併記 등의 정책이 교차로 시행되어 왔다. 참고로 이를 1948년 정부 수립이후 우리의 어문 정책의 변화를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8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제6호를 공포 시행하여, 공용문서는 한글 전용으로 하기로 하였고; 1951년 교육용 한자를 제정함에 따라 1952년 발행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국어 교과서는 상용한자 1000자 범위 내에서 漢字를 併記하였으며; 1957년 문교부에서 임시 허용 漢字를 제정하였는데, 기존의 1,000자에 새로 300자를 추가하였고; 1963년 교육 과정을 개정하면서 <제2차 교육 과정>을 공포하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상과 중·고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실시하되, 이들 각 학년과 각 급 학교의 국어 교과서에 한자가 노출되었고, 교육용 漢字 수를 초등학교(4-6년) 600자, 중학교 400자, 고등학교 300자로 정했으며; 1969년의 <교육 과정 개정>에서는 다시 교과서에는 한글 전용을 시행하였고; 1971년의 <교육 과정 부분 개정>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한문을 필수 교과서로 지정하였으며; 1973년에는 국내의 몇몇 대학에 한문 교육과를 신설하였고; 1991년에는 대법원에서 <人名用 漢字>를 제정하였는데, 상용한자에 1054자를 증가시켰으며; 1992년에는 <제6차 교육 과정>을 고시하였는데,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을 학교 재량으로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1997년에는 <제7차 교육 과정>을 고시하였는데, 재량 활동 시간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1999년에는 주민등록증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였고; 1999년의 <사무 관리 규정 개정>에서는 모든 공문서에 한자의 병기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0년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자종 수정>을 공포하였는데, 1,800자 상용한자 가운데 44자를 추가하고, 44자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漢字 교육 방침은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을 보듯 194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런 사회 교육 환경에서는 어느 시기에 초등·중등·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한자의 기본 소양에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한자 교육이 시행되지 않은 시기에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취합해 보면, 漢字 교육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배우지 않아도 되는 마치 鷄肋과도 같은 존재가 한자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교육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의 부재로 이어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사회 통념이 되고 그 후손들인 오늘날의 대학생들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 다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또한 해방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명의 거침없는 유입 또한 이러한 한자 불필요론의 확산을 더욱 부채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 한자 교육의 현황이자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의식 형태이다.

둘째, 현재의 대학 입시제도에서의 한자 문제의 출제 비중이 지나치게 미미하다는 점이다. 겨우 언어 영역에서 故事成語 또는 한자어를 묻는 문제가 한 두 문제 출제되고 있을 뿐이다. 이 정도의 비율로는 학생들의 주목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어 영어 수학에 시달리는 입시생들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줄어 천만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언어의 발전과 우리말의 한자어 사용 현실 및 의미 전달의 완벽성 추구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불행한 일인 것이다. 한자는 마치 여러 학문을 하는데 있어서 도구 학문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학생들은 이로 말미암아 한자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단지 한자를 많이 알면 우리말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쉽다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첨단 기기의 사용이 한자 교육의 퇴보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선생의 말에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몰두하여 오히려 강의의 깊은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손으로 직접 노트 필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즘처럼 레포

트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상황에서의 한자 쓰기 교육은 마치 시대에 뒤처지는 요구로 인식되고 있다. 급히 돌아가는 세상에 한가롭게 한자를 쓰고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담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첨단 기기 의존적인 현 상황과 학생들의 인식이 한자 교육의 장애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넷째, “실용”이라는 이름이 덧붙여진 한자 강의가 각 대학에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약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대학에는 “漢文”이라는 이름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었고, 이런 강의들은 대부분이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의 배양과 漢文 문장을 해독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라는 목표 아래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은 한문 교육이란 과목을 줄이고 실용성을 강조한 한자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이른바 시대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순응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中國의 古典을 텍스트로 삼은 한문 강좌는 점점 없어지고 “실용”이라 이름 붙여진 한자 강좌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자 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 언급하였다. 이 외에 한자 교육의 문제점으로 적시될 수 있는 요인들 많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오늘날 우리나라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자 교육의 현황 가운데의 네 번째이다. 매스컴에서 일 년에 한 두 번은 대학생들의 漢字 실력을 문제 삼는 기사를 보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사는 학생들이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일 뿐, 중·고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런 상태에서 대학에서는 한자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한자 교육에 대한 목표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4. 大學 漢字 教育의 目標

대학의 한자 교육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揭示하여야만 우리나라 각 대학의 한자 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뚜렷한 범위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감

스럽게도 모든 대학의 한자 수업이 통일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는 것 역시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2007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한 <중·고등학교 한문과 교육 과정>의 목표를 먼저 살펴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가. 중학교(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나.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審美的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라. 先人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 문화를 바르게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 마. 漢字 文化圈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⁷⁾

위의 이런 교육 목표는 비록 이것이 중·고등학교의 한문과 교육 과정의 목표이지만, 가 항에 규정된 한자 數만 상용한자에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를 더한 수까지 확대한 다음, 이것을 오늘날 우리나라 각 대학의 한문 교육의 목표로 삼아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문제는 대학 漢文이 아니라 漢字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자와 한문 교육을 구분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요즘의 추세는 실용의 강조이다. 따라서 교과 과목의 제목을 정할 때도 한문이란 이름을 가급적 피한다. “漢文”이라고 말하면 학생들이 피하고 어려워 할까봐 가능한 한 “漢文”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漢文”이라는 이름을 피하다 보니 자연히 “漢字”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한자 수업이라 한다면 학술적인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밀이 너무나 얇은, 속이 흰히 보이는 인상을 주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천박함을 피하기 위하여 “한자”라는 말 앞에 수식어를 붙여 준다. 이를테면 “비즈니스 한자”, “21세기 교양 한자” 등과 같이 말이다. 이에 대한 대학과 학생들

7) 교육인적자원부(2007a), (2007b)

의 요구는, 첫째는 실용적 가치를 심어주자는 것이고; 둘째는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며; 셋째는 교과목의 학술적 가치를 담보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 투영하여 말하면, 교수는 학생들이 한자 교육을 싫어하는 현상이나 형식의 변화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나, 한자 교육의 본질을 잊지 않고 학생들과 같이 세상의 추이에 따라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닌 본질인 것이다. 학생들이 즐겁게 필요에 의하여 한자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형식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학의 교양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사실은 한자가 교육이 아니라 한문 교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 한자 교육의 목표 역시 한문 교육의 그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대학 내의 한자 교과목의 활성화는 한문 교과목과의 상호보완이나 中國文字學 또는 漢字學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같은 학문적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유행하는 한자 급수 시험이 대변하듯 이러한 시험을 통해 취업을 위한 하나의 스펙을 갖추려는 의도가 팽배해 있다. 초등학교 학생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출판되는 대부분의 한자 관련 출판물을 보면 알 수 있다. 마치 대기업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 시대의 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교양 한자 과목은 학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한 音訓을 아는 정도의 단순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빨리 학습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만약 시대가 변하여 기업이 한자 시험의 급수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면 대학의 한자 교육은 용도 폐기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한자에 대한 공부가 단순히 글자만을 공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적 탐구의 기쁨을 맛보면서 각자의 전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소양은 비즈니스와 외교 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한자 문화권에서 이것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현실은 좀 더 심각한 것 같다. 학생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한문은 말할 것도 없고 한자 공부에 있어서도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골치 아픈 한자 혹은 한문을 익혀서 취업용 스펙을 갖추는 것을 제외하고 과연 어디에 쓸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은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전공 분야도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결과가 분명히 보이지도 않는

한자를 배우는 일에 정력을 쏟기 싫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여 한자 교육의 개선책을 찾을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5. 大學 漢字 教育의 改善策

대학 한자 교육의 개선책을 한마디로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한다 하여도 아직 교육의 王道가 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빠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마치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늙음을 한탄하는 노인의 심정으로 亂麻와도 같이 얽힌 이 문제를 처리하기엔 力不足의 한계를 느끼지만, 부족한대로 문제의 개선책을 찾아 보도록 하겠다.

취업을 목적으로 개설된 대학의 한자 강좌는 한문 강좌보다는 비교적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만을 수용하여 수업이 진행된다면 대학과 취업 학원의 수업 차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교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주의를 끌어들이면서 더욱 한자 교육의 목표에 근접한 발전된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첫째, 학생들에게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앞에서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자 공부의 필요성을 그때그때마다 꾸준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은 中國 대세론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머지않은 장래에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강대한 중국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때가 되면 영어만큼 중국어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고 따라서 한자는 자연히 주목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가 뒷받침 된다면 한자 교육은 자연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향후의 한자 교육은 正體字와 簡體字를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昨今の漢字 교육은 현대 중국어의 교육에서는 簡體字만을 가르쳐서 正體字를 알지 못하고, 반대로 교양 과목으로서의 한문이나 한자 교육은 正體字로만 이루어져 簡體字를 잘 모르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중국어로서의 漢字만을 배운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상용한자로 지정된 한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교양 과목으로서의 한자만을 배운 학생들은 중국에 가서 똑같은 “漢字”라고 이름 붙여진 簡體字를 읽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말은 못하더라도 간체자를 배우기만 했어도 의미가 파악될 만한 내용이 많다. 중국어를 따로 학습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미 한자로 자리매김 된 간체자 역시 수업 시간에 다루어야 할 대상이라 생각된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북학이 유행한 깊은 뜻을 오늘에 되살리는 길이라 생각된다.

둘째, 우선 한자 교육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무엇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느냐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한자 수업 중에 古文獻 속의 작품을 소개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漢文” 교육의 목표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교과목 명칭이 “漢字”로 이름 붙여진 이상 한문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십상이다. 실제로 유명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학생들의 반응은 어렵다는 주장이 태반이고 과목명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학생도 있었다. 교과목 이름이 “비즈니스 한자”라면,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유연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그러하려면 古人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다양한 글을 읽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학생들을 달래가며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자의 폭넓은 이해는 문장 안에서 확인을 해야 더욱 분명히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사실 “비즈니스 한자”라는 교과목 이름과 완전히 부합하는 수업으로 진행한다면, 그것은 신문의 경제면에 나오는 한자를 정리하거나 경제와 관련된 서적 속의 한자어를 소개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비록 이름은 한자 수업이지만 자연스럽게 한문 수업으로 연계가 되며 맹목적으로 한자를 암기시키는 수업보다는 문장을 읽히는 것이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따라서 “무엇을 어느 선까지 가르쳐야 할 것인가”라는 분명한 목표 설정은 학생들과의 생각의 차이를 줄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과 내용과 교수법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한자 능력은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수강 인원이 200명에 가까운 한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실력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세분화된 교과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학생들을 대상으로千篇一律인 교과 내용과 교수법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한자 교육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한 학기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학생들의 수준을 미리 파악하여 반을 편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들의 수준이 낮다면 교수법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故事成語를 이용해 관련된 한자를 파워 포인트로 만들어 레포트를 제출한다면 학생 본인의 자기주도적인 한자 교재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교수법과 그것에 준하는 흥미로운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교수법은 舊態依然하였다. 2차원적인 판서만으로는 지루한 한자 수업을 흥미롭게 이끌 수가 없다. 수업의 내용이 지루하고 단시간 내에 그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교수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身’자를 가르치는 경우, 파워 포인트를 만들어 甲骨文과 金文 그리고 小篆體 ‘身’자의 字形을 보여주고, 여기에 임신한 여자의 몸매 사진을 첨부하여, 이 글자는 본래 배가 볼록 나온 임신한 여자의 모양을 형상화하여 만든 상형자이고, 임신한 여자의 몸이라는 본래의 뜻에서 “몸”, “신체”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음을 설명하면, 학생들의 주목도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훨씬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한자 수업이 학생들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에는 교과서의 내용이 진부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는데, 교재도 이런 방법으로 제작한다면, 제한된 내용이라는 한계로 인한 교재 제작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6. 結語

이상으로 대학에서의 한자 교육의 필요성, 대학 한자 교육의 현황, 대학 한자 교육의 목표, 대학 한자 교육의 개선책을 살펴보았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우리네 인생에서만 맴도는 공허한 꾸밈이 아님을 이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窮則通”이라는 옛말을 想起한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의 한자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한자와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학의 한자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를 새로운 학습법으로 잘 편제한다면 대학 한자 교육의 앞길에도 희망의 瑞光이 비추어지리라 기대된다.

〈參考文獻〉

- 김대현, <대학 한문교육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어문논총 제14,15호 합집, 전남대학교국어국문학회연구소, 1994.
- 이강제, <대학 교양 한문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中國文學》 제38집 한국중국어학회, 2002.
- 박영호,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방향>, 《東方漢文學會》 제27집 동방한문학회, 2004.
- 김영주, <大學 敎養 漢文敎育의 現況과 課題: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大東漢文學》 22집 대동한문학회, 2005.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재량활동의 선택과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16호, 2007a.
- 교육인적자원부, <한문 및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16호, 2007b.
- 김우정, <대학 교양 한자 교육의 현황과 과제>, 《漢字漢文敎育》 1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中文提要〉

本論文是爲了解決現今各大學開的漢字教育所面臨的問題而寫作的. 其內容包括大學漢字教育的必要性・大學漢字教育的情況和大學漢字教育的目標以及大學漢字教育的改善方案, 得到的結論如下:

1. 大學漢字教育, 1)爲了維持發展我們國語的豐富的彈性, 2)爲了與先賢疏通而得到教訓和人生智慧, 3)爲了準備我們不久的將來要面臨的強大G2的中國, 4)爲了脫避偏重于一方的思考方式而必要的.

2. 大學漢字教育所面臨的問題有四: 其1)有關漢字的我們國家的語文政策變化太多, 2)大學入學考試出題的問題中漢字問題的出題比重太微微, 3)使用尖端利器引起漢字教育的退步, 4)各大學所開的教養科目當中在科目名稱上頭加‘實用’的漢字科目越來越多的現象.

3. 大學漢字教育的目標有五, 1)認識包括常用漢字的大法院所定的人名用漢字的音訓, 2)培養漢文文章的解讀和其在語言生活上的應用能力, 3)培養漢文資料的了解和吟味能力, 4)培養理解先人的教訓和人生智慧而建立健全的價值觀和良好的人性以及繼承發展傳統文化的態度, 5)擴大漢字文化圈內的各國文化的基礎知識而培養增進互相交流的態度.

4. 大學漢字教育的改善方案提出四點: 1)強調漢字學習的重要性, 因爲中國不久的將來可能會達到G2的地位, 了解中國的第一階段就需要認識漢字; 2)事前確定漢字教育的範圍; 3)把握學生們漢字智識的水平跟要求; 4)漢字教育方法的持續的先進化.

關鍵詞: 漢字, 漢文, 大學漢文, 教養漢文, 漢字教育, 漢文教育.

이 논문은 2010년 5월 12일에 접수되어 2010년 6월 1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0년 6월 21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